



# 아무리 까다로워도 『아이복스』 만나면 걱정 끝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온수산업단지에 위치한 아이복스(대표 송한구)는 국내 유아용 특수 제책 분야에서 독보적인 역사와 기술을 자랑하는 업체다. 아이복스가 지금은 유아용 특수 제책 분야 전문업체로 명성이 자자하지만 설립당시에는 '지기'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였다.

1973년 6월 오성지기라는 상호로 창립된 이래 1976년에는 국내 최초로 케이스 자동 접착기를 도입하는 등 '지기'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합지 기술을 쌓아왔기 때문이다.

지기업체 기술 특수제책으로 승화

아이복스는 오성지기의 기술노하우를 곧바로 유아용 특수 제책 기술에 접목시켰으며 이를 밑거름 삼아 현재는 국내 유아용 특수 제책 분야 최고 권위 업체로 우뚝 서게 됐다.

이는 국내 출판업계에서 유아용 도서가 붐을 이뤘던 1980년대,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며 유아용 합지 특수제본 시장으로 과감히 진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아이복스는 1983년 국내 최초로 합지 제



본용 자동정합기를 도입, 업무 자동화를 시작했으며 이후 1985년에는 정합 2호기 및 고속 접지기 2대를 도입, 증설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자동화 시대를 열었다.

1990년대 들어 유아용 책은 그 제작 기술의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장난감과 같은 기능을 하거나 입체효과를 내는 팝업-북들의 출간이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아이북스는 오성지기 시절 축적해 온 합지, 톱슨 및 기타 지류가공 기술노하우를 통해 항상 변화의 선두에 자리했다.

#### 70% 수분제거율 실현

아이북스에서 가장 자랑하는 기술은 합지 과정에서의 수분제거이다. 합지 과정에서 수분처리가 미흡하면 책이 출간된 후 보관하는 동안 책이 뒤틀릴 수 있다.

아이북스의 합지기술은 수분 제거율을 일반업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림으로써 휘어짐이 없이 반듯한 책을 제작할 수 있게 했으며,

보관 시에도 뒤틀림 현상을 현저히 줄였다. 이러한 수분제거 기술은 아이북스의 합지제본 기술에서도 가장 중요한 연구과제였다. 이에 송 사장은 이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 수년간의 연구와 수십 차례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그리고 송 사장의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지칠 줄 모르는 연구를 통해 1999년에 드디어 수분제거율 70%에 달하는 기술에 성공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벼운 종이를 사용하면서도 수분을 빨리 흡수하고 증발시킴으로써 책을 원래의 형태로 유지시켜주는 미국, 유럽 등지의 선진 각국에서 사용되는 기술 수준에 버금가는 것이다. 국내에도 질 좋은 지류가 많이 개발됨으로써 수분제거에 관한 어려움이 예전보다 상당히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합지 과정의 가장 중요한 기술로 받아들여진다.

#### 55명 전 직원이 영업사원

아이북스에는 영업사원이 없다. 1980년대 중반, 영업부 직원들이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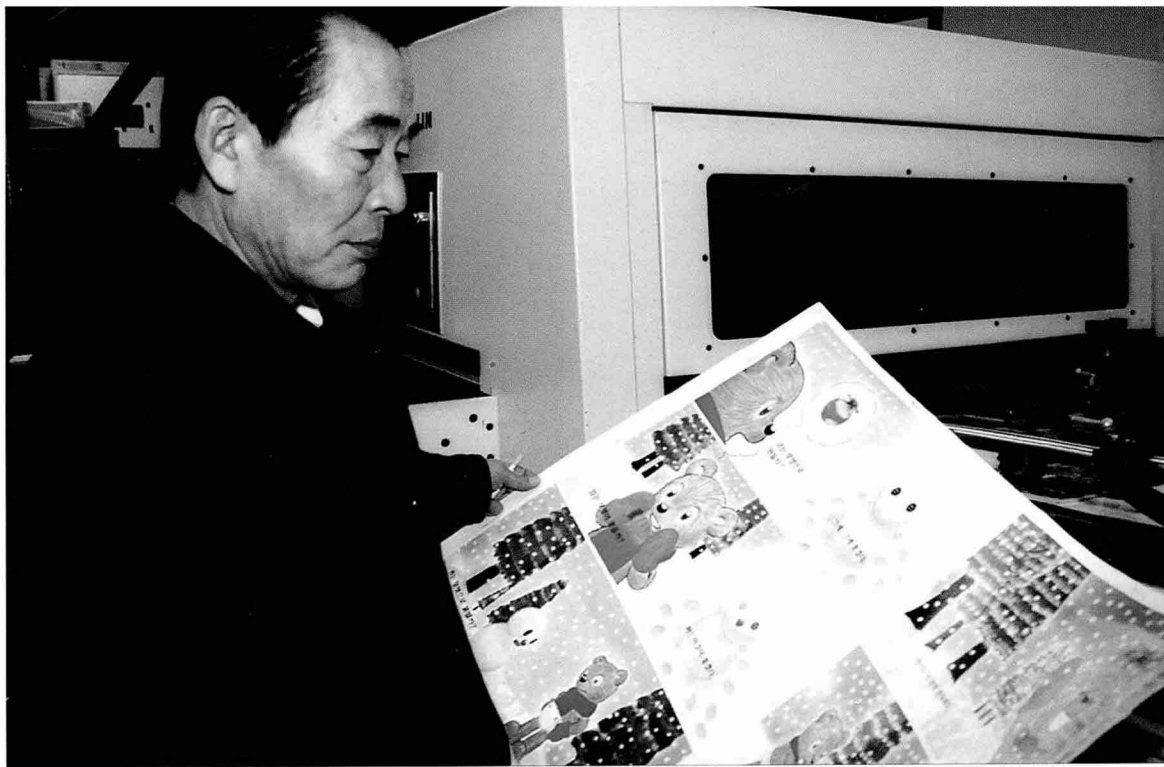
거래선을 가지고 독립하는 바람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송 사장이 영업 전략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송 사장은 품질 관리와 내부 조직관리에 회사의 운명을 걸었다. 특히 철저하고 완벽한 품질관리를 통해 아이북스의 작업 능력에 대한 대외인지도 확대에 주력했다.

이후 송 사장은 “제품 품질이 우수하고 고객과의 약속인 납기 일을 정확히 맞추는 등 아이북스가 일을 잘하면 고객이 먼저 찾아오게 된다. 또한 일단 찾았던 고객은 잊지 않고 다시 찾게되며 더 나아가서는 좋은 소문을 내주고 주위에 소개시켜 주는 등 자원해서 일해주는 영업사원과 같은 역할을 해주게 된다”는 신념을 쌓아왔다.

#### 특수 제책 시설 다양

건평 750평 규모의 아이북스 공장에는 유아용 그림책과 퍼즐 및 각종 교재, 상자, 책케이스, 스프링책, 미싱책, 톱슨, 합지, 각종 박스 등을 제작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30여년의 역사를 간



▶ 송 사장은 제품이 우수하고 고객과의 약속인 납기 일을 정확히 맞추는 등 아이북스가 일을 잘하면 고객이 먼저 찾아오게 된다는 신념을 갖고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직한 기계에서부터 최신 기계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갖추어져 있다. 이를 통해 아무리 까다로운 특수 제책이라도 아이북스에서는 모든 작업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송 사장은 “오늘날 출판계는 눈부신 발전을 해왔으며 우리 제본업계도 이러한 발전에 큰 힘을 보태왔다. 특히 특수 제책 기술은 이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결코 뒤쳐지지 않을 정도의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특수 제책 기술 수준이 이 정도의 위상에 오르기까지 발전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해 왔다는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잉투자 · 영업사원 이탈로 어려움 겪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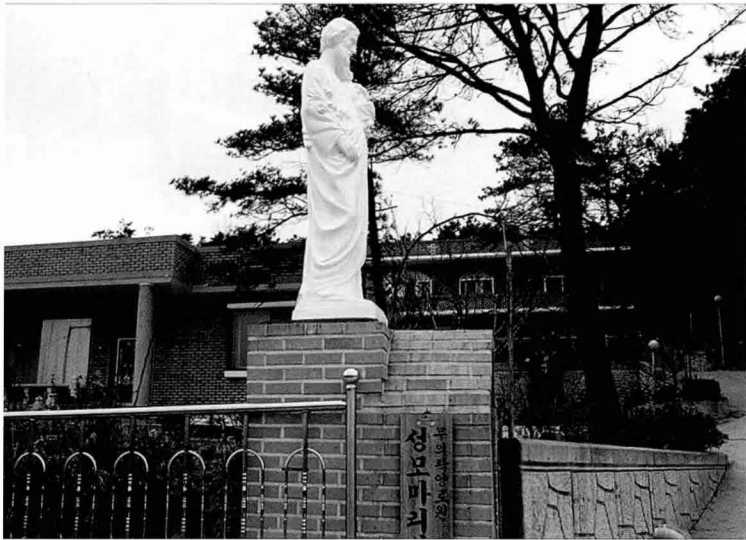
아이북스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사세가 확장되던 1980년대 중반 아이북스는 정합기와 자동접지기를 증설하며 목동으로 사옥을 이전했다. 그런데 이 무렵의 설비투자는 국내 시장상황에 비해서는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영업부 직원들이 자신의 거래처를 갖고 독립, 아이북스



아이북스는 유아용 그림책과 퍼즐 및 각종 교재, 상자, 책케이스, 스프링책, 미싱책, 톱슨, 합지, 각종 박스 등을 제작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다. 이를 통해 아무리 까다로운 특수 제책이라도 아이북스에서는 모든 작업이 가능하다.





▲ 송 사장은 '성모마리아의 집' 후원회장으로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등 사회환원사업에도 매우 열성적이다.

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증대된 유아용 도서 시장이 아이북스를 위기에 서 구해냈다. 이때부터 송 사장은 유아용 도서에 대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쌓는 데 몰입하게 되며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송 사장의 유아용 도서 시장에 대한 애착은 매우 남다르다.

#### 해외 정보 수집에 주력

송 사장은 사업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해외전시회는 물론, 1년에 2~3회 정도는 해외시장을 견학한다. 그럴 때면 수집한 책들을 살펴보기 위해 아침 10시에 카페에 들어가면 8~9시간 동안 꼼짝없이 자료를 분석하곤 한다. 이 때는 일행이 찾아와 귀가 시간을 알려줘야 할 만큼 집중을 하곤 하는데 이 때가 송 사장이 가장 행복한 때라고 한다. 이러한 정보수집의 결과가 아이북스가 국내에서는 가장 다양하고 기술력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한편, 아이북스의 로고인 영어 알파벳 소문자 I는 정보를 뜻하는 영어단어 'information'의 이니셜과 아이 즉, 어

린이라는 뜻이 중의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는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하는 유아용 책을 통해 진정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송 사장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 서울 사당동과 안성시에 무의탁 양로원 운영

아이북스 송 사장은 사회환원사업에도 매우 열성적이다. '성모마리아의 집(원장 송정자)' 후원회장으로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성모마리아의 집'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에 걸린 60세 이상 무의탁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으로서 원장 송정자 씨가 바로 송 사장의 이란성 쌍둥이 누나이다. 무의탁 양로원 사업은 송 사장과 쌍둥이 누나가 길거리에 방치돼 있는 무의탁 노인 2명을 돌보며 시작한 것으로 벌써 12년째에 이르고 있다.

특히 '성모마리아의 집' 운영에는 나춘호(예림당), 김석규(몬테소리), 백자현(갑을출판사) 등의 출판계 원로들도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원봉사자들도 늘고 1주일에 한번 무료 진료를 해주는 의사들도 합류하고 있어 제법 자리가 잡혀가고

있다. 송 사장은 사당동(22명)에서 시작한 '성모마리아의 집'을 얼마 전 경기도 안성시(26명)에도 건립하며 서울과 경기 지역의 무의탁 노인에게도 따뜻한 사랑을 전파하고 있다. 어느새 송 사장은 '성모마리아의 집'에서 무의탁 노인들의 건강이 호전되고 성격도 온화하게 변하면서 다시금 사회의 일원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의 하나가 됐다.

또한 전국 각지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의 종교생활과 사회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담안회(회장 안진호)'의 후원회장도 맡고 있다. 담안회 회장을 맡고 있는 안 회장이 송 사장의 아내로서 봉사하는 회원만도 80여명에 달한다.

절실한 기독교 신자인 송 사장은 이와 같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본인 스스로가 위로를 받을 수 있어 더욱 행복하다고 한다.

기자는 이와 같이 소외 받는 이웃에게 사랑을 전파하며 사회환원 사업에 열중인 송 사장의 가족들을 보며 뿌듯함을 얻게 됐으며 이러한 따뜻한 마음이 사업에서도 환하게 빛을 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갑준 기자)